

##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복식문화에 미친 인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박 형 애 · 정 흥 숙\*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ndia in the neo-classical French Clothing**

Hyung-ai Park · Heung-sook Ch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 Professor\*

#### ABSTRACT

History confirms that the eastern style was reflected in various parts of the western culture including clothing. In this paper we show some evidence that the influence of India on the French clothing during the neo-classical period(1789-1820) was substantial. Among others, the use of muslin, kashmir shawl and banyan during the period is greatly emphasized.

The muslin imported from India was used as the textile for the chemise gown, a typical clothing during the period. Indian muslin was used, because it was of better quality compared to the muslin manufactured in England and France and it was not expensive.

The kashmir shawl imported from kashmir in India was also a popular item in Europe not only because it matched well with simple color of chemise gown, but because it expressed the tone of Greek and Roman.

Banyan which was most popular clothing worn by men in 18th century Europe originally came from India, which goes back to the Kaftan clothing in the Central Asia. Banyan was an informal home style clothing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tight men's wear.

It is true that the muslin, kashmir shawl, and banyan also became fashion items throughout the 19th and 20th century to the English and other European people. However, we limited our attention to the influence of India on France because we think the French Revolution and Napoleon's conquest of Egypt are far more important factors when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Indian culture on Europe.

Key Words : Muslin, Kashmir Shawl, Banyan.

## I. 서론

중국과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지역 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고대시대부터 민족의 이동이나 교역, 전쟁 등의 접촉으로 복식을 포함한 다방면의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하였다. 특히 실크로드 주변지역에 위치한 인도는 예로부터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육상무역 그리고 남인도를 통해서는 아라비아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 무역지로서 동·서양의 교역의 요지였다.<sup>1)</sup> 뿐만 아니라 인도는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과 불교의 발원지로서 세계 인류의 정신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인도는 면(cotton)의 원산지로서<sup>2)</sup> 기원전·후년대(B.C.1-A.D.1)에 이미 지중해지역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전파되었다.<sup>3)</sup> 이후 인도의 면직물인 친쯔(chintz)<sup>4)</sup>나 머슬린(muslin)<sup>5)</sup> 등의 직물수출은 계속되어 유럽으로 수출되는 일부 직물을 유럽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어 생산하기도 했고,<sup>6)</sup>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양복식문화에 인도의 직물과 복식의 형태가 반영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이후 1820년까지인 신고전주의 시대에 프랑스를 포함해서 유럽에 미친 인도 복식문화의 영향은 그 시대의 복식을 더욱 우아하게 표현시켰다. 유럽에서는 여성의 의상으로서 고대 그리스의 키톤(chiton) 형태와 유사한 슈미즈 가운(chemise gown)이 유행했었다. 이 가운의 소재로서 인도에서 수입된 머슬린이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이외에도 슈미즈 가운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의상품목으로 인도 북쪽에 위치한 캐시미어(Kashmir) 지역에서 생산된 캐시미어 숄(kashmire shawl)이 여성들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 시대에 그려진 회화작품들에서 고대 그리스 풍의 슈미즈 가운과 함께 캐시미어 숄을 착용한 여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의 남성들에게도 이제까지 착용의 개념이 없던 실내복(연거복, 燕居服) 용도의 반얀(banyan)이라는 편안한 실루엣의 가운이 착용되었다. 반얀은 중앙 아시아 지역이 발원지로 알려진 소매통이 비교적 좁고 전개형이며 띠를 여며 매는 카프탄(kaftan) 형태의 복식으로 중앙 아시아 지역

서 이주한 무갈 제국(Mughal, A.D. 1524- 1707)의 전통복식에서 전래된 의상이다. 반얀은 무갈 제국 전통 실루엣의 별다른 형태 변화없이 프랑스에서 착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시대의 여러 종류의 의상중 인도의 영향이 반영된 슈미즈 가운의 소재로서의 머슬린과 슈미즈 가운과 함께 착용한 캐시미어 숄, 남성들의 실내복인 반얀 만을 대상으로 신고전주의 시대의 유행의 정도와 형태, 착용용도, 인도에서의 유래와 제조과정, 유럽에서의 수용과정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인도 복식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음에도 그간의 연구에 있어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유럽의 복식에 미친 인도의 영향은 시각적, 문헌자료가 풍부한 20세기 이후의 현대패션의 연구에 편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신고전주의 시대의 복식문화에 나타난 인도의 영향에 관한 복식사 연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21세기의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인도영향의 디자인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로서 프랑스 혁명 이후인 1789년부터 낭만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인 1820년대 신고전주의 시대(neo-classic period)로 한정시켰다. 이 시기는 17세기에 시작되어 18세기의 향락적이며 사치스럽던 로코코 시대(Rococo period)의 유럽의 예술과 복식양식에 조화를 잘 이루던 이국적이고 화려한 중국풍인 '쉬누아즈리(chinoiserie)' 현상이 서양세계의 정치적인 불안정시대를 겪으면서 쇠퇴하고 검소하고 소박한 이국취향을 표현했던 인도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그 당시의 동인도 회사와의 교역을 통한 인도의 영향이 영국이나 그 외 유럽에까지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미친 인도의 영향만을 연구한 것은 패션의 리더로서의 유럽에서의 프랑스 역할 외에도 나폴레옹의 이집트와 터키정벌 등의 정치적 상황들이 더욱 더 프랑스 복식에서의 이국적인 영향을 강하게 표현시키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박물관 간행물과 유럽의

회화자료, 인도의 세밀화(miniature), 국내·외 문헌과 논문자료 등을 토대로 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1차적 자료(primary source)의 접근 한계로 인한 간접 연구임에 있다고 사료된다.

## II. 신고전주의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

### 1. 시대적 배경

유럽의 근대사회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19세기에 발전·확립되었다.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시민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프랑스 혁명은 전형적인 시민혁명으로 혁명 이후 사회는 전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이 이성애 의거한 계몽사상으로 대체되고 특권적이었던 교회의 세속화가 이루어졌다.

프랑스 대혁명을 이끌었던 혁명가들은 자신들을 부활한 그리스·로마의 시민으로 자처했고 바이런(G. Byron)과 위고(V. Hugo) 등의 문학과 서구 지식인들 사이에 그리스의 고대문화에 대한 동경의 풍조가 확산되었고 그리스·로마풍의 장려함과 북고 취향적 취미를 반영했는데 이것을 신고전주의라 불렀다.<sup>7)</sup>

프랑스혁명 후 단두대를 정치적 도구로 숙청을 일삼고 정권을 장악했던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 1758-1794)마저 처형되고 이후 등장한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은 1799년부터 1804년의 공화정시대의 제1집정관(the Consulate)으로 추대되었다. 이 시대에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군사·정치면에서 강화시켰고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어 구제도의 법률적·사회적 불평등을 철저히 제거하고자 했다. 1804년부터 1814년의 제정시대(일명 Empire periods)에는 황제로 등극하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다.

이후 화려했던 나폴레옹 시대는 1812년의 러시아 침공의 참패에 뒤이어 1814년의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 등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막을 내렸다. 연합군은 나폴레옹을 퇴위시키고 루이 16세의 동생 루이 18세(Louis XVI, 1814-1823년간 통

치)를 프랑스의 왕으로 즉위시킴으로써 부르봉왕가를 복고시켰다.

18세기에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산업 전반의 근대화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특히 면직물을 중심으로 한 직물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왕족과 귀족위주의 생활양식으로부터 평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등의식이 팽배해져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어갔으며 산업혁명으로 인해 복식의 소재가 풍부해져 왕족이나 귀족을 위한 패션으로부터 일반 서민을 위한 대중적인 패션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동·서의 교류는 유럽의 제국주의 정책과 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동인도 회사의 역할이 컸다. 동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는 17-19세기에 교역을 할 목적으로 동양제국에 설립된 회사의 총칭이다. 영국 동인도 회사(The United Company of Merchants of England Trading into the East Indies)가 1600년 가장 먼저 창립되었고, 네덜란드(Vereenigde Cost-Indische Compagnie)와 프랑스(Francaise des Indes)회사가 1664년에 설립되었다. 동인도 회사를 통한 신대륙과<sup>8)</sup> 중앙 아시아 및 극동 아시아와의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들의 문화와도 접하게 되어 유럽도 큰 영향을 받았다. 향신료, 면직물, 인디고 등의 염료, 커피, 차(tea) 등 동양의 산물을 서양으로 가져왔고 직물에서도 좀더 가벼운 재질, 자잘한 문양, 신비하고도 밝은 분위기의 동양산 직물이 18세기 전반에 이어 계속 사용되었다. 특히 인도에서 수입된 킨츠와 머슬린의 상당한 인기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 2. 예술양식사적 배경

신고전주의는 18세기말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등장하였고 낭만주의가 등장하기전인 19세기초(1820년대)까지 유럽의 문학과 예술을 지배했던 사조로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모형으로 내용보다 형식,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묘사방법으로 작품을 표현했다. 고전 예술에 대한 관심은 1719년 헤르쿨라네움(Herculaneum)과 1748년 폼페이(Pompeii)에서 있었던 유적발굴 및 1755년 독일

의 위대한 고고학자 요한 빈켈만(Johann Joachim Winckelmann, A.D. 1717-1768)의 「그리스 미술 모방론」의 출판 등으로 고조되었다. 특히 나폴레옹 제국이 건설한 법과 질서, 권위와 안정은 조화와 균형의 고전적 양식을 부활시켰다고 볼 수 있다.<sup>9)</sup>

이 시대의 건축 양식으로는 고대를 숭배하는 풍조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유적지의 건축물에 사용된 그리스식 열주와 로마의 돔(dome), 아치(arch)등이 풍부히 사용되었다.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는 당시 화단의 나폴레옹으로 군림했던 다비드(Jaque Louis David, A.D. 1748-1825)와 앵그르(Jean August Dominique Ingres, A.D. 1780-1867)등이 있다. David는 그리스 신화나 풀루타크 영웅전과 같은 고전을 주로 소재로 선택하여 그렸으며, 그의 그림에는 남성적인 영웅적 성격이 강조되어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Oath of the Horatii)' <그림 1>과 '나폴레옹 대관식' <그림 2> 등이 있다.<sup>10)</sup>

David의 뒤를 이어 등장한 신고전주의의 대가는 Ingres였다. 역사화보다는 순수한 고전의미를 추구했던 Ingres는 고전주의의 신봉자답게 색채와 광선보다는 형태와 선을 중시했다. Ingres는 그리스풍의 여인을 많이 그렸는데 그가 그린 인물상들은 대리석같이 맑고 매끈하고 아름다웠고 여체 또한 그 정확한 비례와 질감이 철저히 고전적이다. 그는 작품의 주제를 고대 이외에도 동양에서도 구해 '터키탕'과 '오달리스크(Odalisque)' <그림 3>이 대표적이다.<sup>11)</sup>



(그림1) Oath of the Horatii, 1784년  
Art Through the Ages, p.849



(그림 2) 나폴레옹 대관식, 1805-7년  
The Age of Napoleon, p.84



(그림 3) Odalisque, Art through the Ages, p.590

신고전주의 시대의 실내장식은 간소화되었으며 고전적 신화나 영웅전 등이 장식의 주제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고전 양식을 모방한 화병이나 촛대, 벽난로 등이 실내를 장식하였으며 종려잎, 연꽃, 풍뎅이, 독수리 같은 이집트적인 요소와 화환, 화병, 아칸서스잎, 하프, 폼페이 당초문, 큐피드의 화살 등 그리스적인 문양이 사용되었다.<sup>12)</sup>

한편 19세기 초엽의 프랑스는 나폴레옹 집권이후 루브르(Louvre)를 비롯한 과거 궁중의 건물들을 국내·외 작가들에게 전시장으로 개방했고, 1793년 루이 16세의 처형이후 폐쇄했던 왕립아카데미와 포상제도를 부활했으며, 여섯 명의 심사위원을 둔 살롱전을 격년으로 개최했다. 그리고 정복한 점령지에 부과한 막대한 세금으로 그 나라의 미술품을 대납하게 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국적인 것, 동양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구체적으로 동양의 풍물에 관심을 갖게 했다.<sup>13)</sup>

16세기에 중앙 아시아로부터 인도로 이주해 건립된 무갈 제국에 의한 인도의 많은 지역의 이슬람화

로 인해 중·근동의 이슬람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장엄한 건축술이나 문양, 경전에 그려지는 삽화인 세밀화, 꽃이나 식물의 줄기나 잎, 꽃 모양들을 기하학적으로 디자인한 아라베스크(Arabesque) 문양 등이 18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장식공예에 영향을 미쳤다.<sup>14)</sup> 의상도 고대 아시아 유목민족의 기본 복식인 카프탄(kaftan) 형태와 발목이 좁혀진 바지, 터번 등이 착용되었다.

무갈 왕조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유럽인들의 제국주의적 진출은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영국은 1757년 플라시(Plassy) 전투에서 프랑스를 제압하면서 인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본격화했다. 영국인들의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가 확립됨에 따라 현재 파키스탄의 북서부이며 과거의 인도의 영토였던 간다라(Gandhara) 지역에도 적지 않은 유럽인들이 진출하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19세기 초 이 지역에 있는 간다라 양식의 서방 고전풍의 조각들이 처음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sup>15)</sup>

간다라미술<그림 4-a>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B.C. 323)의 인도정벌(B.C. 327)로 인하여 인도의 종교미술에 그리스의 헬레니즘 미술양식(Hellenistic style, B.C. 336-A.D. 146)<그림 4-b>이 접목되어 나타난 양식이다.<sup>16)</sup>



(4-a)간다라양식의 불입상 (4-b) 아폴로상, 헬레니즘시대  
(그림 4) 간다라 미술, p. 32

서양의 위대한 미술전통이 동양의 대표적 종교인 불교의 불상이 탄생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고, 지중해 세계의 미술양식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동방에서 수 백년 동안 꽃을 피웠던 사실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1860년 이후 많은 조각·유물들이 수집·반출되어 영국의 대영박물관 등 유럽의 여러 박물관들에 소장되었다.<sup>17)</sup>

### 3. 복식의 일반적 특징

1798년의 프랑스 혁명이후 혁명세력에 의해 지배되던 집정시대에는 전 시대인 로코코 시대의 귀족적이며 향락적인 사회상의 표현인 아름답고 화려한 의상 스타일과는 대조되는 단순한 실루엣과 색상의 새로운 패션이 등장했다.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시민사회에 맞추어 장식된 화려함보다는 자연적인 모습을 중요시 여겼고 당시 이상적인 모델은 고대 그리스 복식이었다.<sup>18)</sup>

이 시대의 여성의 대표적인 의상으로는 얇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리스의 키톤 같은 스타일의 의상이 등장했다. 이 새로운 드레스는 슈미즈 가운 또는 라운드 가운(round gown)<그림 5>으로 불렸다. 슈미즈 가운과 함께 캐시미어 솔<그림 5>을 착용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캐시미어 솔은 단순한 스타일의 슈미즈 가운을 우아하게 보이게 할뿐만 아니라 외출시에는 코트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림 5) 슈미즈 가운과 캐시미어 솔, 1802년  
Costume & Fashion, p.154

이외에도 스펜서(spencer)라는 겹옷이 유행했다. 스펜서는 길이가 허리까지 오며 하이 칼라가 달려

고 소매는 손등까지 덮힐 정도로 길렀고 주로 짙은 색상으로 슈미즈 가운데 대조를 이루었다.

이 시대의 남성복식은 혁명시의 민중을 배경으로 하는 시민들이 착용했던 상의인 카르마놀(carmanole)과 헐렁한 바지(pantaloons)의 착용에서 제정 시대에는 남성의 복식도 여성의 복식성향과 같이 단순하고 검소하며 단색 소재의 의상이 선호되었다. 상의로 착용한 코트와 조끼의 허리선(waistline)은 여성의 슈미즈 가운데 실루엣에서와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갔다.<sup>19)20)</sup> 남성들의 상의로는 여러 용도와 형태의 코트와 베스트(veste), 하의로는 꼭 끼는 바지인 킬로트(culotte)를 입고 목 장식으로는 크라바트(cravatte)를 했다. 코트와 베스트의 칼라는 때로는 움직임이 불편할 정도까지 높게 올라갔다(그림 6).<sup>21)</sup>

코트의 형태는 허리선 아래의 앞판을 잘라낸 것 같은 모양의 테일 코트(tail coat)가 1800년대 처음 나타났고 이외에도 코트의 여밈이 싱글 여밈과 더블 여밈 또는 앞판의 도련이 곡선 또는 직선으로 재단된 형태의 다양한 코트들이 있었다.

베스트는 남성복의 다른 품목들이 수수한 색상과 형태와는 대조적인 밝은 색상으로 허리선까지 짧아졌고 싱글 여밈에 스탠딩 칼라나 솔 칼라가 달린 것이 대부분이었다(그림 6).

남자복의 하의인 경우는 킬로트와 함께 위사르(hussarde)가 등장했는데 킬로트가 밀착된 형태임에 반해 위사르는 헐이 판탈롱처럼 풍성하고 바지



(그림 6) 코트, 베스트, 크라바트, 1801년  
The Age of Napoleon, p.82

단은 킬로트처럼 꼭 맞는 형태이다. 이외에도 실내복으로는 인도에서 전파된 반안을 착용하는 것이 유행했었다(그림 18, 20).

나폴레옹이 권력을 장악한 제정시대에는 1804년 거행된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화려한 대관식이후(그림 2) 의상에 장식적인 요소가 증가하게 된다. 단순한 형태의 슈미즈 가운데 기본적인 형태에는 변화가 없지만 뒤에 끌리는 장식적인 트레인과 데콜레테(decollete)를 따라 달린 주름 칼라인 콜레테(collerette), 넓어진 스커트 폭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로브(robe)로의 변화를 초래했다(그림 7).<sup>22)</sup> 남성복은 금사로 자수를 놓거나 화려한 단추 장식이 더해지면서 귀족풍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7) 콜레트칼라의 슈미즈가운과 트레인, 1810년  
The Age of Napoleon, p.87

### III. 프랑스 복식에 나타난 인도의 영향

본 장에서는 신고전주의 시대의 머슬린과 캐시미어 솔, 반안의 형태와 특징, 프랑스인의 패션반응, 인도에서의 생산방법, 프랑스로의 수용 과정 등을 프랑스와 인도라는 지역적 구분을 두어 연계적으로 연구하였다.

#### 1. 머슬린

##### 1) 슈미즈 가운데 소재

신고전주의 시대 여성의 대표적 의상인 슈미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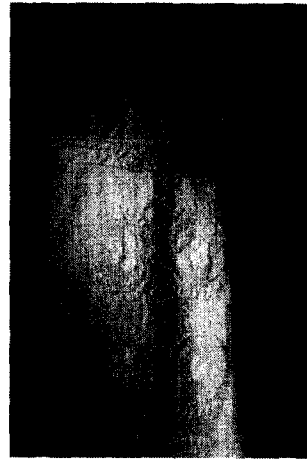
가운은 그다지 폭이 넓지 않은 앞이 막힌 통형의 긴 스커트, 허리선을 끈으로 개더를 잡는 드로우스트링 톱 스타일(drawstring top style)의 하이 웨이스 트라인, 낮은 목선과 짧은 소매의 단순하고 노출된 스타일이었다. 이 의상은 때때로 목선과 허리선이 겨우 2인치 정도뿐이 안 떨어진 경우도 있으며 의상의 색상으로는 흰색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은 청렴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원래의 채색이 지워지고 백색으로 된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의 영향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의 키톤에서는 직사각형의 천을 재단하지 않는데 비해 이 시대의 슈미즈 가운은 재단과 재봉을 하여 그리스 키톤 스타일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sup>23)</sup> 가운은 콜셋이나 최소한의 속옷 위에 착용했고 개중에 용감한 여성들은 가운 속에 아무 것도 안 입는 경우도 있었다.

슈미즈 가운의 소재로는 의상 형태의 단순성과 고전적인 표현, 드레이프의 미(美)에 맞게 흰색의 얇은 머슬린이나 리넨 또는 실크와 면의 교직인 멀(mull)등이 사용되었다<그림 8, 9>. 특히 인도에서 수입된 다양한 종류의 머슬린은 아주 얇고 투명하여 슈미즈 가운의 형태미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소재로 각광받았다.

면 섬유의 원산지인 인도는 예로부터 투명한 머슬린의 국제적 생산지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값싸게 생산되어 유럽대륙의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다.<sup>24)</sup> 신고전주의 시대의 슈미즈 가운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넥클로스(neckcloths), 여성들의 에이프론(aprons) 그리고 넥 핸드커치프(neck-handkerchiefs) 등과 의상의 트리밍(trimming) 등에 인도산 머슬린이 18세기부터 이미 널리 사용되었다.

<그림 8>은 나폴레옹의 남동생인 제롬 보나파르트(Jerome Bonaparte, 1784-1860)의 신부인 엘리자베스 패터슨(Elizabeth Patterson, 1785-1879)이 1803년의 결혼식에 착용한 웨딩드레스이다. 이 드레스는 멀(mull)이라 불린 매우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얇은 인도산 머슬린에 두꺼운 면실로 세틴 스티치(satin stitches)와 프렌치 노트(French knots)방법으로 꽃이 자수 장식되었다.<sup>25)</sup> <그림 9>는 1818년의 의상들인데 왼쪽 여성의상의 소매부분과 오른쪽 어린이의 의상 전체가 멀 직물로 구성되었다.<sup>26)</sup> 따라

서 의상의 용도나 연령 등을 막론하고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인도산 머슬린이 폭넓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머슬린 외에도 인도에서 생산되는 캐시미어 솔과 사리(sarie)도 슈미즈 가운의 소재로 이용되었다.<sup>27)</sup>



(그림 8) 멀직물 웨딩 드레스 세부, 1803-6년  
The Age of Napoleon, p.105



(그림 9) 멀직물 드레스, 1818년  
In Style, p.28

## 2) 인도 머슬린의 생산과 프랑스의 수용

인도에서는 말말(mal-mal)로 유럽에서는 모두 간단히 머슬린이라고 불린<sup>28)</sup> 이 직물에 대한 초기 기록은 B.C. 3세기 이전의 로마 시대의 것으로, 이 기록에 의하면 인도 북동쪽의 벵갈(Bengal: 지금은

벵갈의 서쪽지역과 Bangladesh 지역)〈그림 13〉으로 부터 생산되는 일명 ‘갠지스(gangetic)머슬린’은 고대 사회의 귀중품으로 여겨졌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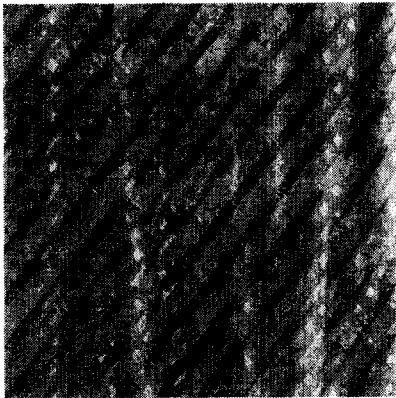
유럽과의 교역기간동안 벵갈은 계속해서 인도의 다른 지역보다 면직물 수출에의 주도권을 잡았고 벵갈의 다카(Dacca)지역에서 가장 질이 좋은 머슬린이 생산되었다. 다카에서 생산된 머슬린의 투명함은 “저녁이슬이나 흐르는 물”, 혹은 “셔벳처럼 달콤한”이라는 광고 문구 등으로 신문에 광고되었다.<sup>29)</sup>

머슬린에는 약 100가지가 넘는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었는데 문양의 종류, 자수기법, 직조방법, 날염법, 실크와의 교직 등에 따른 개별적 명칭이 있었다.<sup>30)</sup> 자무다니(jamdani) 〈그림 10〉는 금·은실 또는 백색의 실크를 섞어 짠 섬세하고 우아한 머슬린으로 직조시 아래에 초벌 그림을 놓고 비쳐보면서 조직 속에 무늬실을 짜 넣은 것이다.<sup>31)</sup> 텐자브(tanjabs)는 평직의 머슬린으로 꽃무늬가 있는 것을 말하며 치칸(chikan) 〈그림 11〉은 얇고 투명한 바

탕 천에 섬세하게 흰색의 꽃을 수놓은 머슬린이다.<sup>32)</sup> 마드라스(madras)머슬린은 두껍고 부드러운 실로 자수한 것이고, 오간디(organdy)는 부드럽고 불투명한 도투락 점무늬(raised-spot pattern)의 머슬린이다. 레노(leno)는 매우 가볍고 성근 머슬린을 말한다.

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머슬린에는 주로 꽃이나 식물모양 등이 바탕 천 전체나 또는 소매, 치마단 위치 등에 부분적으로 장식되었는데 자수 장식이 가장 흔했으며 이외에도 깨끗한 머슬린 위에 접착액을 칠하거나 블록프린트(block-printed)기법으로 금박과 은박을 붙이고 문지르는 로간(roghan)기법도 많이 사용했다.<sup>33)</sup>

나폴레옹 제국 시대에 프랑스정부는 국내산 직물 보호를 위해 인도산 머슬린 직물 수입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나 영국의 국내산 직물의 보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값싸고 질이 좋은 인도산 머슬린은 계속 수입되었다.<sup>34)</sup> 그러나 1820년경 신고전주의 시대의 마감과 때를 같이 해서 산업혁명을 거친 영국이 품질 좋은 면직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인도 면직물 산업은 쇠퇴해버린다.<sup>35)</sup>



(그림 10) 자무다니

Wonders of The World's Museums, p.140



(그림 11) 치칸머슬린의 bodice, 1810-1820년

Textile History, p.64

## 2. 캐시미어 솔

### 1) 캐시미어 솔의 착용

신고전주의 시대의 프랑스에서는 색상과 실루엣이 단순한 슈미즈 가운과 함께 고대 그리스 시대의 히마티온(himation)이나 로마의 팔라(palla)와 같은 효과를 주는 다양한 색상과 화려한 문양으로 직조된 캐시미어 솔이 많이 착용되었다. 캐시미어 솔은 슈미즈 가운과 조화되어 표현되는 아름다움 외에도 외출 시에는 코트와 같이 신체의 보온이나 물리적인 보호를 위한 기능적인 효과도 가진 그 시대의 부유층 여성들에게는 필수적인 의상품목이었다. 고전적 미인의 구비요건처럼 애용된 이 솔은 그 소유수에 따라 유행과 멋에 대한 관심의 척도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할 정도로<sup>36)</sup> 유행했는데 조세핀 황후는 300-400장의 솔을 소지하였다고 한다.<sup>37)</sup>



수공으로 만든 캐시미어 솔은 부(簞)를 나타내는 아이템의 하나였지만 차츰 상류사회의 전용물에서 1820년경부터는 대중에게까지 수요가 증대되었다. 신고전주의 시대부터 1870년까지 그려진 많은 여인의 초상화에는 항상 의상의 장식품목으로 캐시미어 솔이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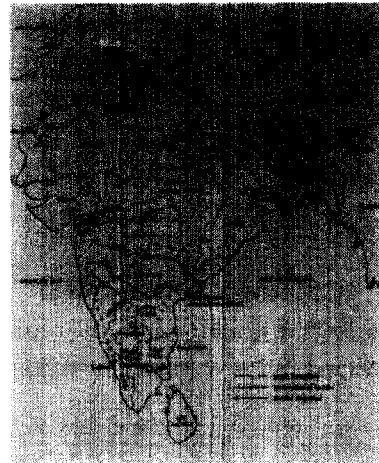
캐시미어 솔은 솔로서 만의 착용뿐만 아니라 때때로 드레스를 만들거나 코트의 밑단을 솔의 가장자리 장식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그림 12>는 안토니어 장 그로스(Antoine-Jean Gros, 1771-1835)가 그린 조세핀의 초상화인데 이 그림 속의 그녀는 긴 캐시미어 솔로 만든 그 시대의 전형적인 의상인 슈미즈 가운을 착용했다. 솔의 솔방울 무늬는 드레스의 밑단으로 오도록 배치되었고 또 다른 붉은 색의 솔은 드레스 위에 가슴 밑을 감고 한쪽 끝은 왼쪽 어깨 앞으로 늘어지고 다른 쪽 끝은 트레인(train)처럼 끌리도록 했다. 그 당시에는 캐시미어 솔로 드레스를 만들어 입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솔의 크기가 컸고 또한 슈미즈 가운의 스타일이 간단했기 때문이다. 길고 휘날리는 캐시미어 솔은 어깨에서 드레이프 지게 착용했는데 활동의 편리함을 위해 가끔 드레스의 진동에 꿰매지기도 했다.<sup>38)</sup>



(그림 12) 캐시미어 솔로 만든 슈미즈가운과 캐시미어 솔을 착용한 조세핀  
The Age of Napoleon, p.105

2) 인도 캐시미어 솔 생산과 프랑스의 수용  
캐시미어 솔은 이란과 중앙 아시아와의 강한 문

화적 연결이 있는 히말라야(Himalayas)의 비옥한 캐시미어계곡<그림 13>의 산양의 털을 수방한 실로 직조한 것이다. 캐시미어 지역에서 솔이 짜여진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초의 기록으로는 15세기 초기의 무갈 왕조의 술탄인 자인 울 아비딘(Zain ul'Abidin, A.D. 1420-1470)이 나르 백(Naghz Beg)이라는 투르키스탄(Turkestan)인과 페르시아 직조 공들을 초청해서 솔을 짜게 했다고 한다.



(그림 13) 인도의 캐시미어지역과 벵갈  
Textiles 5,000 years, p.102

무갈 시대의 캐시미어 솔은 남자들의 의상으로 어깨 주위에 감거나<그림 14> 폭을 좁게 직조해서



(그림 14) 무갈의 악바르 황제와 그의 가신들, 16세기 후반  
Wonder of the World's Museums, p.102

허리끈으로 사용했다<그림 15>. 솔은 부귀의 상징일 뿐 아니라 국가간의 우호의 징표로 사용되는 중요 품목이었고 18세기말까지도 많은 솔들이 터키나 페르시아 등의 중·근동시장으로 팔려나갔다.<sup>39)</sup>



(그림 15) 무갈의 샤자한 황제의 초상, 1630년  
Wonders of The World's Museums, p.105

유럽에서의 솔의 착용의 기원은 이집트에 팔려나간 캐시미어 솔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벌에 의해 프랑스로 도입되었고 후에 영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초기에는 얇은 슈미즈 가운 위에 걸쳐 입어서 몸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어깨에 두르기 시작했고 점차로 장식성이 강조되면서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sup>4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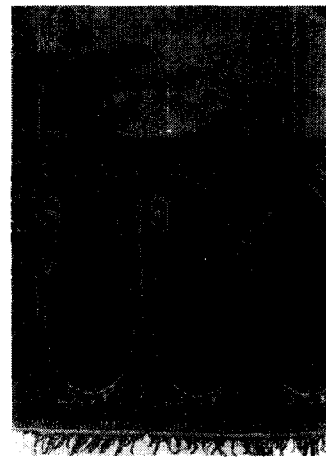
특히 영국에서 18세기의 3/4분기시대부터 동인도 회사를 통해 캐시미어 솔이 수입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이 되었다. 프랑스는 영국보다 약간 뒤늦은 시기인 18세기말부터 널리 유행을 했다. 특히 미래의 황후인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핀이 캐시미어 솔을 애용하면서 <그림 12> 그녀의 패션을 추종하는 부인들에 의해 더욱 더 유행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의 멋쟁이 여성들은 자신들이 드레스들에 어울리는 색상의 솔을 1개에서부터 6-7개 정도까지 소유했다<sup>41)</sup>.

유럽여성들에 의한 구매의 수요량 증가로 인해서 좀더 많은 양의 솔을 생산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생산방식과는 다른 솔 제조방식이 유럽의 제조업자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드로우 룸

(draw loom)이 사용되다 이후 1845년에 자카드 룸(jacquard loom)이 발명되어 화려하고 복잡한 디자인의 복사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1800년 경에는 스코틀랜드의 페이즐리(Paisley)지방에서도 생산되었으며<sup>42)</sup> 페이즐리 지역이 결국에는 유럽 솔 생산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것이 '페이즐리'라는 오늘날의 솔 명칭의 기원이 된 것이다.<sup>43)</sup>

캐시미어에서 수공업으로 생산되는 캐시미어 솔과는 달리 유럽산 페이즐리 솔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생산되었다. 문양을 나타내는 여러 색상의 위사는 디자인에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뒤쪽에 띄워져 있다가 직조가 끝난 후 솔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띄워져 빠진 위사를 처음에는 손으로, 다음에는 회전 털깎기로 잘라냈다. 페이즐리 솔 디자인은 캐시미어 솔을 따랐으나 상당수는 독창적인 디자인이었고 때때로 전혀 캐시미어 솔 같이 보이지 않기도 했다.

캐시미어 솔 디자인으로는 길게 늘인 솔방울이 혼한 모티브였으며 디자인은 상당히 복잡하기도 했다. 페르시아에서는 '신성한 불꽃',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꽃을 명칭하는 '부타(buta or butha)' 또는 '솔방울'이라고 하는 커다란 콤마(comma)모양의 무늬<그림 16><sup>44)</sup>는 무갈 예술 양식에 많이 나타나는 전통 식물문양이다.<sup>4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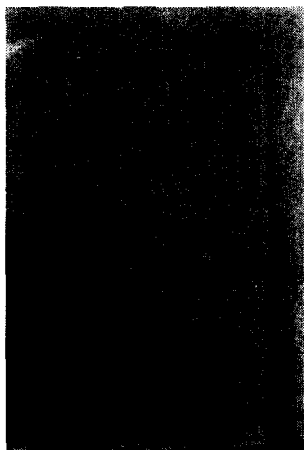


(그림 16) 캐시미어 솔 문양, 1815년  
The Cashmere Shawl, p.58

캐시미어 솔의 무늬 디자인은 1830년까지는 짧고

통통했고 꽃 봉우리가 힘없이 처졌고 가장자리 장식부분(boder)의 폭은 좁았다. 이러한 부드럽고 유동적인 커브선의 꽃 문양은 그 당시의 신고전주의의 스크롤(scrolls) 문양과 혼합되어 디자인에 조화롭게 사용되었다. 꽃 봉우리가 처지는 인도의 전형적인 스타일은 점차로 솔방울 모양이 길어지고 1850년대에 이르러서는 추상적인 소용돌이 모양(abstract scrolls)으로 되었고 솔방울 무늬는 견고한 외곽선에 갇혔으며 가장자리의 폭도 넓어졌다.<sup>16)</sup> 18세기 말에는 무늬의 크기가 더욱 더 커졌으며 양식화하였다(그림 17). 캐시미어 솔의 다양하고 추상적이며 화려한 문양들은 오늘날의 현대 직물의 디자인에도 널리 이용되어진다.

솔 유행의 정점은 1850-60년대에 날염과 직조의 기계화로 인해 값이 싸지면서 대중화되자 백년을 계속 되어온 솔 유행이 레이스와 자수에 자리를 넘기게 되었다.



(그림 17) 양식화된 캐시미어 솔문양, 1855-60년  
The Cashmere Shawl, p.143

## 5. 반얀

### 1) 실내복 개념의 반얀

프랑스 혁명의 시작과 함께 구 정권의 의상은 사라지고 새로이 등장한 남성 패션 중에는 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정장(formal wear)과 잠옷의 중간 개념인 실내복(informal at-home styles)으로서 반얀(그림 18, 20, 21, 22)이 착용되었다. 18세기부터 유럽

남성들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착용되었던 반얀은 나이트 가운(night gowns), 드레싱 가운(dressing gowns), 인도 가운(India gowns)으로 불리었는데 이러한 명칭들은 실내복인 동시에 동방을 기원으로 둔 의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sup>17)</sup>



(그림 18) 1767-70년  
Orientalism, p.37

힌두어로 '셔트(shirt)'라는 의미의 반얀은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의 카프탄 형태의 복식이 된 것으로<sup>18)49)</sup> 인도에서는 무갈 시대부터 착용되었다. 무갈 왕조는 중앙 아시아 출신의 투르크-몽고족의 왕 바부르(Baber, A.D. 1483-1530)가 남부 데칸 고원의 여러 왕조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해서 16세기 중엽에 확립한 이슬람교도에 의한 통일정권이다.<sup>51)</sup> 그들은 본래 유목생활을 하던 소박한 민족으로, 투르크족(Turkmen, 투르케스탄, 이란 등에 사는 투르크멘 사람)과 중앙 아시아의 몽고족의 복식과 유사한 직선재단의 앞이 트인 전개형으로 허리띠로 여미는 카프탄 형태의 코트를 착용했다(그림 14, 15). 카프탄의 길이는 둔부선, 무릎길이, 발목선 등의 다양한 길이로 길거나 짧은 또는 소매가 없는 베스트형 카프탄도 있었는데 소매가 없는 카프탄은 젊은층에서 즐겨 착용했다(그림 19).

반얀은 18세기의 딱딱한 형태의 남성복식으로부터 해방되는 편안하고 여유있는 차림새로 유럽의 정찬 후의 편안한 실내복으로 인기가 있었다(그림 18, 20). 실내복이라는 기능과 '편안함'의 상징성의

개념을 동시에 갖춘 반안은 남성들이 외출에서 돌아오거나 또는 정찬 후에 재킷을 벗은 후 베스트(또는 셔트)와 크라바트, 바지 위에 착용했다.<sup>51)</sup>



(그림 19) 무갈왕실의 소매없는 카프탄, 17세기  
Wonders of the World's Museums, p.105



(그림 20) 반안, 1816년  
Nineteenth Century, p.35

소재로는 화려한 다마스커스(damasks) 또는 브로케이드(brocades), 울(wool), 면 등의 다양한 소재가 이용되었다. <그림 20>은 스커트 양옆으로 무(gore)를 대어 플레어(flare)지게 구성한 숄 칼라(shawl collar)의 반안을 베스트와 크라바트, 바지위에 편안하게 착용한 모습으로 의자 위에 놓인 캐시미어 숄과 함께 강한 인도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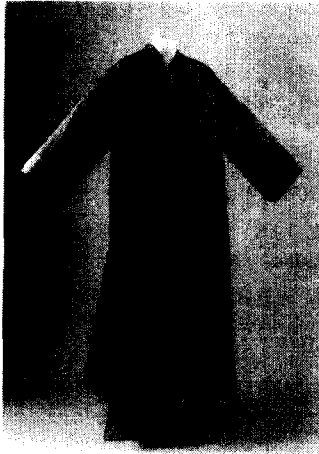
## 2) 반안의 수용배경

반안과 같은 카프탄 형태의 복식이 최초로 서양에 전래된 시기는 중세의 십자군 전쟁(A.D. 1095-1272)기간 동안이다. 이후 앞서 막힌 중세인들의 튜닉 중심의 복식형태는 앞 중심이 전개되고 허리 끈으로 여밀 수 있는 복식인 푸르푸앵(pourpoint)으로 17세기 바로크(Baroque)시대에는 쥐스토코르(justaucorps)로 변형되어 오늘날의 남성복의 시조가 된다.<sup>53)</sup> 공적인 장소를 위한 formal한 복식 외에 중세말기 이래로 남성들이 실내에서 착용한 편안한 로브(robe)를 나이트 가운이라 불렀고 혈령한 셔트 형태였으나 17세기 중엽경부터 나이트 가운은 넓은 소매의 T-shape 또는 카프탄 형태로 만들어졌다. 사용된 직물은 주로 울이나 실크였다. 정확하게 이 시점부터 '인디안 가운'으로 불리며 이국적인 의상 아이템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18세기부터는 나이트 가운은 '반안'으로 불리게 되었다.<sup>54)</sup>

이러한 형태와 명칭의 변화는 동인도회사를 통한 교역 등으로 인도와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인도에 머물게 된 사람들이 유럽과는 다른 덥고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통기성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소재와 형태의 복식인 무갈인들의 전통 복식을 착용하게 되었고 이들에 의해 전파되어 18세기 이후부터 영국과 프랑스에서 많이 착용되었다.<sup>55)</sup> 따라서 반안은 착용되는 시점과 착용의 용도에 있어 중세시대부터 이미 수용되어 formal한 의상으로 정착한 카프탄 형태의 복식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국적인 것에 호기심 많은 유럽인들이 인도와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실내복 개념으로서 그들의 패션을 받아들인 것이며 이미 실용적인 목적에서 그들의 복식을 착용한 유럽인들이 자연스럽게 패션 리더 역할을 한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의 부유한 남성들이 인도인의 바지인 파자마(pajama)와 실내용 겹(cap)이나 터번과 함께 반안 차림의 초상화로 많이 그려졌다(그림 18, 20). 예술가들에 의해 묘사된 반안의 착용 형태는 몸의 움직임에 의한 많은 드레이퍼리가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유럽의 남성들의 몸에 맞게 재단되고 구성된 실루엣이 아닌 동양의 넉넉한 형태의 의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56)</sup>

18세기의 전반부의 반얀의 형태는 셋-인-슬리브(set-in sleeves)가 없고 별다른 재단이 없는 원래의 카프탄 같은 단순한 T-shape의 직선 재단이었다(그림 21). 그후 18세기 중엽이후 부터는 좀더 복잡한 재단법이 적용되어 몸에 타이트하게 맞고 베스트의 앞면이 반얀에 부착되어 만들어지기도 했다.<sup>57)</sup> <그림 22>의 가운데의 반얀은 1730년대의 반얀으로 1780년대에 만들어진 양쪽의 반얀과 비교해 볼 때 초기의 넓고 풍성하며 힐렁한 형태에서 재단이 좀더 복잡한 몸에 맞는 구성법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반얀, 1735년  
Orientalism, p.36



(그림 22) 반얀, 1780년대  
In Style, p.21

####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1820년대까지의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발달한 복식문화에 있어서 인도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 요소들로 슈미즈 가운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던 머슬린과 캐시미어 솔, 반얀을 살펴보았다.

머슬린은 단순하고 소박한 직물로 고대 그리스풍의 단순하고 노출된 스타일인 슈미즈 가운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었다. 인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머슬린은 그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생산되었던 머슬린에 비해 아름다우며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에 슈미즈 가운 외에도 웨딩드레스나 어린이 복식, 의상의 부분 장식 등의 소재로 폭넓게 사용되었다.

히말라야의 비옥한 캐시미어 계곡에서 생산된 화려한 색상과 인도 전통의 솔방울 문양의 캐시미어 솔은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벌에 의해 프랑스로도 입되었다. 캐시미어 솔은 슈미즈 가운의 단순한 색상에 아름다움을 더 해줄 뿐만 아니라 가볍고 보온성이 있어 심미성과 함께 기능성을 갖춘 값비싼 아이템이었다. 특히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핀이 캐시미어 솔을 애용하면서 그녀의 패션을 추종하는 부인들에 의해 더욱 더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솔로써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루엣의 슈미즈 가운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가격이 비싼 캐시미어 솔의 모방품이 자카드에 의해 생산되었다.

카프탄 형태의 복식은 이미 중세시대에 중앙 아시아로부터 유럽에 전래된 것으로 바로크시대의 쥐스토코르를 거쳐 오늘날의 신사복으로의 발달을 가져왔다. Formal한 카프탄 형태의 복식과는 달리 17세기 중엽부터 유럽의 남성들이 실내에서 많이 착용했던 반얀은 중앙 아시아의 유목민족의 카프탄 형태 복식이 인도의 무갈 왕조에 의해 인도에서 착용되고 이것이 다시 인도와의 교역으로 인한 접촉으로 유럽 남성들에게 '편안함'이라는 개념으로 유행한 실내복이었다. 초기의 단순한 T-shape의 반얀

은 점차로 장식성이 강화되어 상체는 몸에 타이트하게 맞고 스커트 부분은 플레어지는 형태로 발달되었다. 회화를 통해 본 초기의 편안함을 강조한 의상으로서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드레이프가 많이 나타나고 넉넉한 형태이며 장식성이 강화된 후의 반얀은 몸에 밀착된 실루엣과 장식적인 직물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고찰 결과 프랑스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슈미즈 가운을 위한 인도산 머슬린과 캐시미어 솔, 반얀과 같은 인도의 직물이나 복식이 인도와의 활발한 교역에 힘입어 이국적인 취향을 표현하는 패션으로 폭넓게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도의 영향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제3세계 특히 동양의 문화와 종교에 관심을 갖은 60년대의 히피나 오늘날의 오리엔탈풍의 패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국적인 이미지의 반영으로써 인도의 직물이나 문양, 터번, 사리, 자수장식 등이 별다른 형태의 변화 없이 계속 디자인의 모티프로 사용되고 있고 캐시미어 솔의 독특한 솔방울 문양(일명 페이즐리)은 고급스럽고 유행에 크게 변화되지 않는 클래식 이미지로써 다양한 의상품목에 차용되고 있다(그림 23).



(그림23) 현대패션에 적용된 캐시미어 솔  
Valentino, Collections, 95년 S/S

따라서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도 복식은 신고전주의 시대에도 프랑스의 복식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듯이 오늘날 또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상 디자인의 영감으로서의 충분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21세기는 동양사상에 대한 본질성 등이 재인식되면서 동양에 대한 관심이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가시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패션 또한 이러한 동양적 관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훌륭한 디자인의 창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복식사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및 미주

- 간다라미술, 예술의 전당, 1999.
- 구학서, 이야기 세계사, 청아출판사, 1987.
- 박남희, "19세기 프랑스 회화에 나타난 동양성에 관한 연구",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5집, 1993.
- 박우찬, 서양미술사 속에는 서양미술이 있다, 재원, 1998.
- 정홍숙 & 박형애, "로코코 시대의 프랑스 직물에 나타난 신와저리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11호, 1998.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 정홍숙 & 최현숙, "신고전주의 양식이 19세기 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 학회지, 제21권 1호, 1983.
- 정현숙, "십자군 전쟁이 중세복식에 미친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Vol. 24, No.1, 1986.
- 배만실, 장식미술사, 기문당, 1994.
- 복식대사전, 라사라, 1996.
-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88.
- 신윤길, 영국 동인도 회사 연구, 서원, 1996.
- 이가은, 세계사 500년, 그린비, 1988.
- 이은구, 인도문화의 이해, 세창출판사, 1983.
- 킨바야시 코넬미치, 예술학, 지성의 샘, 1994.
- 오춘자, "아시아 Kaftan 양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5.
- 최병식, 아시아 미술의 재발견, 동문선, 1991.
- 차하순, 서양사 총론, 탐구당, 1986.
- Blanche Payne, Geitel Winakor & Jane Farrell-Beck, The History of Costume, HarperCollins Publishers, 1992.
- 블랑 쉬페인, 복식의 역사, 이종남, 안해준, 김선영, 정명숙 譯, 까치, 1977.
- Britannica, Vol.9, Encyclopadia Britannica, Inc., 1990.
- Edward W. said,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 E.M. 빈즈, R. 러너, & S. 미첨, 서양문명의 역사, 소나무, 1987.
- Kax Wilson, A History of Textile, Westview Press,

- 1979.
-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Harry N. Abrams, Inc., 1987.
  - Horst de la Croix, Richard G. Tansey, & Diane Kirkpatrick, Gardner's Art through the Ages II,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7.
  - James Lator, Costume & Fashion, Thames and Hudson, Inc., 1988.
  - Jane Turner ed., The Dictionary of Art,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Vol. 7, 1996.
  - Jannifer Harris ed., Textiles 5,000 Years, Harry N. Abrams, Inc., 1993.
  - Jayne Shrimpton, "Dressing for a Tropical Climate: The Role of native fabrics in fashionable dress in early Colonial India", Textile History, 23(1), 1992.
  - Gertrud Lehnert, Fashion, Barron's, 1998.
  - Jane Ashelford, The Art of Dress: Clothes and Society 1500-1914, Harry N. Abrams, Inc., 1996.
  - Jacques Anquet, Silk, Flammarion, 1998.
  - Jean L. Druessedow, In Style: Celebrating Fifty Years of the Costume Institut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7.
  - Judith Jerde, Encyclopedia of Textiles, Facts on File, 1992.
  - Katell le Bourhis ed., The Age of Napoleon: Costume from Revolution to Empire 1789-1815,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9.
  - Kax Wilson, A History of Textile, Westview Press, 1979.
  - Krishna Riboud ed., In Quest of Themes and skills-Asian Textiles, Marg Publication, 1989.
  - Linda Lynton, The Sari, T&H: London, 1995
  - Monique Levi-Strauss, Cashmere Shawl, Harry N. Abrams, Inc., 1986.
  - Phyllis Tortora & Keith Eubank, A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1989.
  - 피시벌 스피어, 인도 근대사, 신구문화사, 1993.
  - Richard Martin & Harold Koda, Orientalis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4
  - The Kyoto Costume Institute, Revolution in Fashion 1715-1815, Abbeville Press, 1990
  - Textiles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5.
  - 발레리 베린스탱, 무굴제국: 인도이슬람 왕조, 시공사, 1998.
- 1) 인도의 고대문화지역은 인도반도와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일부까지를 포함한 지역이다.
  - 2) 인도는 B.C. 3000년경 부터 면으로 실을 생산한 것이 모헨조다로(Mohenjo-daro)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 3) 민길자, 세계의 직물, 한림원, 1998, p.68.
  - 4) 면직물에 채색한 직물로 17세기부터 유럽에 수출되었고 의상뿐만 아니라 침대장식 커버나 의자의 커버 등에 이용되었다.
  - 5) 면직물로 만든 직물을 말하며 직물의 가공방법, 두께, 넓이, 질,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인도의 머슬린은 매우 얇고 투명하며 금·은 등의 프린트와 자수 장식된 것이 많아 무척 아름답다.
  - 6) Kax Wilson. A History of Textile. Westview Press, 1979, p.197.
  - 7) 박우찬, op. cit., pp.143-144.
  - 8) 신윤길, 영국동인도회사연구, 서원. 1996, p.207.
  - 9) 킨바야시 코네미치, 예술학, 지성의 샘, 1994, p. 88
  - 10) Horst de la Croix, Richard G. Tansey, & Diane Kirkpatrick, Gardner's Art through the Ages II,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6, pp. 849-850.
  - 11) Horst de la Croix, Richard G. Tansey, & Diane Kirkpatrick, op. cit., p.875
  - 12) 배만실, 장식미술사, 기문당, 1994, p.230
  - 13) 박남희, "19세기 프랑스 회화에 나타난 동양성에 관한 연구",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5집, 1993, p.55.
  - 14) 최병식, 아시아미술의 재발견, 동문선, 1991, p.60.
  - 15) The Exhibition of Gandhara Art of Pakistan, The Seoul Arts Center, 1999, p.62
  - 16) Ibid., pp.20-22.
  - 17) Ibid., p.65
  - 18) Gertrud Lehnert, Fashion, Barron's, 1998, p.84.
  - 19) Ibid., p.91.
  - 20) Phyllis Tortora & Keith Eubank, A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1989, p.209
  - 21)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p.292.
  - 22) Ibid., p.289
  - 23) The Kyoto Costume Institute, op. cit., p.116
  - 24) Wonders of the World's Museums, 빅토리아 왕실 박물관, 한국일보사, 1987, p.148
  - 25) Jean L. Druessedow, In Style: Celebrating Fifty Years of the Costume Institut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7, p.26.
  - 26) Ibid., p.28.
  - 27) Richard Martin & Harold Koda. Orientalis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4, p.36.
  - 28) Judith Jerde, Encyclopedia of Textiles, Facts on File, 1992, p.156.
  - 29) Ibid., p.63.
  - 30) Ibid., p.63.
  - 31) Wonders of The World's Museums, 인도국립박물관,

- 한국일보사, 1988, p.140.
- 32) Jayne Shrimpton, op. cit., pp.62-64.
  - 33) Linda Lynton, *The Sari*, T&H, London, 1995, p.318
  - 34) Blanche Payne, Geitel Winakor, & Jane Farrell-Beck, op. cit., pp.399-400
  - 35) 조길태, *인도사*, 민음사, 1994, p.351
  - 36) 정홍숙 & 최현숙, "신고전주의 양식이 19세기 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1호, 1983. 3월. p.32.
  - 37) Kax Wilson, op. cit., p.167.
  - 38) Blanche Payne, Geitel Winakor, & Jane Farrell-Beck, op. cit., pp.446-468.
  - 39) Kax Wilson, op. cit., p.166.
  - 40) Monique Levi-Strauss, *Cashmere Shawl*, Harry N. Abrams, Inc., 1986, p.14
  - 41) *Ibid.*, pp.16-19.
  - 42) Jannifer Harris ed., *Textiles 5,000 Years*, Harry N. Abrams, Inc., 1993, pp.107-109.
  - 43) *Britannica*, Vol. 9. *Encyclopadia Britannica Inc.*, 1990, p.68.
  - 44) 그것은 최초로 6세기 이집트와 사산왕조(Sassanian: 226-651 A.D.)에서 구부러진 앞사귀의 형태로 등장했고 캐시미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 45) 이외에도 무늬의 유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대추야자 열매의 콘 모양(cone of the date palm) 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한다. 고대의 왕국인 칼데아(Chaldes)에서는 다산과 생명의 부활을 상징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그 모티브가 아몬드 형태의 보석장식과 깃털로 장식된 무갈 제국의 왕 바브르가 착용했던 그의 터번에서 기원한 것으로 직공이 즉시 그것을 디자인에 모방했으며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엘룸(Jhelum)강의 구불구불한 그림과 같은 지류모양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주먹 권 손 옆면의 압인(fist palm)이라고도 한다.
  - 46) Kax Wilson, op. cit., p.68.
  - 47) Jean L. Druesedow, op.cit., p.20.
  - 48) Richard Martin & Harold Koda, op. cit., p.35.
  - 50)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Fairchild Publications, 1985, p.25.
  - 51) 이은구, *인도문화의 이해*, 세창출판사, p.291.
  - 52) Richard Martin & Harold Koda, op. cit., p.35
  - 53) 오춘자, "아시아 Kaftan 양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5, p.176.
  - 54) Karen Baclawski, *The Guide to Historic Costume*, B.T. Batsford Ltd., 1995, p.153.
  - 55) Jayne Shrimpton, op. cit., pp. 55-56
  - 56) Richard Martin & Harold Koda, op. cit., p.37.
  - 57) Karen Baclawski, op. cit., p.153